

4대 役事로 대도약 ... 광주·전남 번영의 미래 열자

(역사)

문화전당 개관·KTX 개통·U대회 개막·혁신도시 시대 지역 발전 기회이자 도전...상생으로 효과 극대화 나서야

2015년 을미년(乙未年) 청양띠 해가 밝았다. '청양(靑羊)의 해'는 양의 온순하고 부드러운 성격과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푸른색의 의미가 더해져 행운을 부르는 해로 여겨진다.

광주·전남지역의 2015년은 대변혁의 해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공간이 생기고, 교통과 물류에 대한 소외감을 일소해줄 KTX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또 나주 빛가람도시(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으로 열악한 기업·도시 인프라를 채워줄 새로운 동반자를 맞았으며, 지구촌 대학생들의 큰 잔치인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열어 국제 도시에 걸맞은 면모를 갖추게 된다.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없었던, 지역민의 생활을 완전히 바꿀 기회이자 도전이다. 이 날을 위해 우리는 오랜 세월을 앞만 보고 달려왔다.

우리는 지역의 미래를 바꿀 행운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왔다. 이제 광주·전남은 행운을 불러 대도약의 해를 이뤄야 한다. 끝없는 소외의 터널을 지나 100년의 미래를 담보해야 할 숙명이 우리에게 있다.

지역과 국내를 넘어 아시아의 문화를 지배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드디어 오는 9월 문을 연다. 단일 문화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문화전당은 국내 문화지도는 물론 아시아 문화 지형의 크게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화와 예향의 도시임에도 현대 문화 관련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광주는 이번 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문화산업의 거점이자 아시아 문화 교류의 허브로 변모하게 된다. 호남 문화의 산실로서 명실상부한 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문화 교류·창작 발전소의 역할을 하게 된다.

문화수도로 탈바꿈한 광주는 일차적으로 지역 고용유발 효과와 막대한 문화

생산·소비에 따른 지역 파급효과, 관광 활성화 등에 힘입은 문화·경제적 혜택이 기대된다.

광주·전남의 상생과 미래 발전의 축이 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안정하면서 벌써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운데 최대 규모인 한국전력이 이미 1개월 전부터 업무에 들어가는 등 13개 기관이 자리를 잡았다. 올해 안에 나머지 3개 공공기관이 이전해오면 상주 인구는 최소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른 생산성 증가와 지역 경제 유발효과, 나아가 청년 일자리 제공으로 인한 지역 인재들의 취업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차별과 소외의 대명사이자, 호남의 한(恨)으로 일컬어졌던 호남고속철도가 오는 3월 개통된다.

이제 광주·전남과 수도권 간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기회이자 위기를 맞게 됐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문화전당·무등산·광주비엔날레 등 광주·전남의 문화와 관광을 상품화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의료·교육·쇼핑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할 여의 유출에도 대응해야 한다.

7월 3일부터 열흘간 개최될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지역의 역량을 떨치고,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다. 광주는 최초로 유치한 국제대회를 계기로 국제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역민의 매너와 의식 수준도 업그레이드시켜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문화전당 완공에 따른 파급효과와 고속철 개통에 대비한 전략, 혁신도시 효과의 극대화 등을 위해서는 광주·전남의 상생은 필수다.

호남의 틀 안에서 미래를 향한 상생의 전략만이 대역변의 해에 대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일보사가 지난 2012년 창사 60주년을 계기로 연재를 시작한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는 올해 '청양(靑羊)의 해'를 맞아 말레이시아 소수민족의 삶과 보석 같은 이야기를 찾아 나선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인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편에 이은 8번째 여정이다.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사바주 (주) 크닝아우 지역 원주민들이 이방인들을 환영하는 춤사위를 선보이고 있다. /코타키나발루=양세열 기자 jeans@kwangju.co.kr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8부 말레이시아편 ▶ 11면

코타키나발루 = 양세열 기자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코타키나발루에서 만난 무릇 족은 숫자 7에 대한 특별한 신념이 있다. 일생에 한 번 뿐인 결혼식에 입는 의복을 만들 때도 7일 동안 염색을 하고, 죽은 이의 영혼이 잠시 육신으로 돌아오는 것도 7일째 되는 날이라고 믿는다.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숫자 7에 대한 믿음의 뿌리는 깊다. 무릇 족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설화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태초에 빛과 어둠이 생기기 전에는 오직 '뿔뿔'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바위만이 있었다. 사람과 동·식물은 물론 대지도 없던

'뿔뿔' 바위에서 탄생한 세계 보석같은 이야기가 쏟아진다

시절 유일하게 존재한 것은 뿔뿔이었다. 세상은 뿔뿔이 돌로 나뉘며 키노호링인, 수미닌둥이란 신을 탄생하며 시작됐고 그렇게 하루가 열렸다. 다음날 빛이 어둠을 밝히자 대지에 풀과 나무가 자라났고, 이후 동물과 인간이 땅에서 번성하게 됐다.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지는데 7일이 걸렸다.

2015년 을미년 양띠 해를 맞아 광주일보 '아시아문화 원류를 찾아서' 취재진은 다양한 인종과 종교,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문화의 용광로'로 불리는 말레이시아를 찾아간다. 창사 60주년을 기념하는 지난 2012년, 아시아 각국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 소개하는 '아시아문화 원류를 찾아서'를 시작한 이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을 둘러봤다. 광주일보에는 각 나라에 흩

어져 있던 다양한 이야기를 아시아라는 커다란 주제에 맞춰 재조명하며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가치들을 재조명 해오고 있다. 'Malaysia Truly Asia'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자신들이 가진 매력을 소개하는 말레이시아. 그들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만 이곳과는 또 다른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다. 영국 등에 의해 아픈 식민역사도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해 여러 언어와 인종, 문화를 융합해 독특한 매력을 빚어냈다. 덕분에 3000만 명이 사는 아시아 작은 나라는 한해 방문객만 2000만 명이 넘는 정도로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슬람 국가 특성상 안정된 사회 분위기와 한류에 대한 관심, 영어를 사용하고 물가도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한국 방문객도 크게 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는 2015년, '진짜 아시아'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수많은 이야기를 품은 말레이시아가 빛의 도시, 예향의 도시 광주의 진짜 면모를 발견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hot@kwangju.co.kr

신년특집 지면 안내

- 문화전당 9월 4일 개관 ▶ 3면
- 빛가람 혁신도시 시대 ▶ 4면
- KTX호남선 1단계 개통 ▶ 5면
- 광주 U대회 7월 개최 ▶ 6면
- 호남 상생의 한 길로 ▶ 7면
- 안나의 남극통신 ▶ 12면
- 사람이 문화자산이다 ▶ 13면
- 블루오션 다도해 ▶ 14·15면
- 신춘문예 당선작 ▶ 24·25면

조선대학교병원
CHOSUN UNIVERSITY HOSPITAL
조선대학교병원장 문경래
TEL. 062.220.3114 응급센터. 062.220.3119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새해 **기쁨** 맞이

새로운 모험의 시작
The New GLA-Class